

# 접속문의 독립성과 의존성에 대하여

이 은 경

(국어국문학과 강사)

## I 머리말

전통적으로 연결 어미에 의해 이어진 문장은 앞뒤 절의 의미 관계나 통사적인 관계에 따라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구분되어 왔다. 그러나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의 예문을 보기로 하자.

- (1) 가. [할아버지는 모자를 사셨겠]-고 [할머니는 옷을 사셨겠]-다.  
나. [할아버지는 모자를 사셨]-고 [할머니는 옷을 사셨]-겠다.  
다. [할아버지는 모자를 사시]-고 [할머니는 옷을 사시]-으셨다.  
라. [할아버지는 모자를 사]-고 [할머니는 옷을 사]-셨겠다.

위의 예문은 가장 전형적인 대등 접속문으로서 연결 어미 ‘-고’에 의하여 나열의 의미 관계로 선행절과 후행절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이다. 그러나 이 접속문들이 모두 동일한 의미를 나타낸다고 할 때, 선행절과 후행절이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가)의 선행절과 후행절은 서로 다른 주어와 목적어를 갖추고 있다. 또한 선행절과 후행절 서술어의 어간에는 주체 존대를 표시하는 선어말 어미 ‘-시-’와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었-’,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겠-’이 독립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한편 (1나)에서는 (1가)와는 달리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겠-’이 후행절의 서술어에만 결합되어 있다. 이 경우 (1나)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가 가능하다. 즉 첫번째 해석은 선행절을 확정적인 사실로 표현하고 후행절의 내용에 대해서만 추측을 나타내는 것이다. 두 번째 해석은 선행절과 후행절 내용에 대해서 모두 추측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만약 (1나)가 두 번째 의미를 나타낸 것이라면 선행절은 추측을 나타내는 요소를 후행절과 공유하고 있으며, 그 요소에 대한 해석만큼은 후행절에 의존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1다)에서 선행절은 후행절의 과거 시제의 요소와 추측의 요소를 공유하고 있

며, 그 요소의 해석만큼은 선행절이 후행절에 대해 의존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1라)는 선행절 서술어에 아무런 선어말 어미가 결합되어 있지 않은 경우이다. 이 때에도 주체 존재의 요소와 과거 시제의 요소와 추측의 요소를 공유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선행절은 후행절에 대해 그만큼 의존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동일한 내용을 나타내는 접속문이라고 하더라도 예문 (1)에서 선행절의 후행절에 대한 의존성의 정도는 (1가)에서 (1라)로 갈수록 높아진다고 할 수 있으며, 선행절의 독립성은 (1가)에서 (1라)로 갈수록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위의 예문이 대등하게 이어진 전형적인 문장이라고 할 때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에서도 독립성이나 의존성의 정도는 달라질 수가 있음을 보인다. 또한 종속적인 연결 어미가 붙은 절의 독립성이나 의존성의 정도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국어의 접속문을 논의함에 있어 대등과 종속의 구별만으로는 절과 절 사이의 통사적 관계를 제대로 드러내기가 어려움을 입증한다. 그러므로 본고는 연결 어미가 붙은 절이 주절에 대해 얼마나 독립적이며 얼마나 의존적인지 그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이어진 문장의 절과 절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sup>1)</sup>

본고는 접속문에서 선행절의 독립성과 의존성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주어의 공유 현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어진 문장에서 선행절의 주어와 후행절의 주어가 다른 경우는 주어가 동일한 접속문에 비해 절과 절 사이의 독립성이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같은 경우는 다른 주어의 사태가 연결된 경우보다 독립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예문을 보자.

(2) 가. 철수가 학교에 갔고 조금 뒤에 영희가 회사에 갔다.

나. 철수가 밥을 먹고 학교에 갔다.

위의 예문은 모두 연결 어미 '-고'에 의하여 선행절과 후행절이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 때 선행절 서술어에 과거 시제의 선어말 어미 '-었-'이 결합될 가능성은 (2가)의 경우가 훨씬 높다. 이는 아마도 독립적인 주어의 행동을 나타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본고는 주어의 독립성 여부도 절과 절의 독립성을 파악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음으로는 서술어와 종결 어미 사이에 올 수 있는 선어말 어미의 결합 정도를 살펴보기로 한다. 국어의 경우 서술어의 어간에 결합될 수 있는 일반적인 어미로는 다음과 같은

1) 최현배(1971: 839)에도 앞절과 뒷절의 대등성이 분명한 종속 접속문에 대한 언급이 있다. 독립성의 기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종속 접속문의 경우에도 선행절과 후행절 사이의 관계에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것이 있다.

(3) 서술어의 어간 + ‘-(으)시-’ + ‘-었-’ + ‘-겠-’ + ‘-습-’ + ‘-느-’ + ‘-이-’ + 종결 어미<sup>2)</sup>

이 중에서 종결 어미는 언제나 주절(마지막 절)에만 결합될 수 있으므로 종결 어미에 대해서는 언제나 의존적인 해석만이 가능하다.<sup>3)</sup> 또한 화자의 겸양을 나타내는 ‘-습-’이나 화자의 양태를 나타내는 ‘-느-’, 상대 높임을 표현하는 ‘-이-’의 경우도 연결 어미가 붙은 절의 서술어에 결합하여 나타나는 경우가 없다. 이 요소 또한 언제나 주절의 서술어에만 결합되어 나타난다. 그러므로 선행절의 서술어와 후행절의 서술어가 독립적으로 갖추고 나타날 수 있는 요소들로는 주체 존대소 ‘-시-’, 과거 시제소 ‘-었-’, 미래 시제소 ‘-겠-’이 있을 수 있다.<sup>4)</sup>

그러므로 독립적이라 함은 연결 어미가 붙은 절이 종결 어미를 제외한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주어와 함께 서술어와 관련된 모든 요소를 다 갖추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의존적이라 함은 선행절이 그러한 요소들을 갖추고 있지 않아서 주절의 요소에 의존하여 해석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종합하면 절과 절의 독립성을 판단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특성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설정할 수 있다.<sup>5)</sup>

(4) 가. 주어의 공유 현상

나. 선어말 어미의 공유 현상

(가) 주체 존대소의 공유 현상

(나) 시제소의 공유 현상

(ㄱ) 과거 시제소의 공유 현상

(ㄴ) 미래 시제소의 공유 현상

2) 이러한 분석은 임홍빈 외(1995: 280)의 분석에 근거한다. ‘-습-’과 ‘-느-’, ‘-이-’의 경우, ‘-습니다’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분석하는 견해도 있고, ‘-습니-’만을 하나의 단위로 분석하는 견해도 있으며, ‘-습-’과 ‘-니다’로 분석하는 견해도 있다. 여기서는 그러한 분석의 문제는 더 깊이 들어가지 않기로 한다.

3) 국어의 접속문에서는 아무리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 하더라도 종결 어미에 의해 표시되는 언표 내적 효력만큼은 주절에 의존하여 해석되어야 하므로 통사적인 관계에서의 대등적인 관계란 사실상 생각하기가 어렵다.

4) 이러한 선어말 어미 외에 서법을 나타내는 ‘-느-’, ‘-더-’, ‘-리-’와 ‘-것-’, ‘-니-’ 등이 있으나 이들 선어말 어미는 연결 어미가 붙은 절에는 결합되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여기서는 검토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5) 본고는 단순히 이들이 결합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본고의 검토에서는 문법성이나 적격성보다는 용인성이나 적절성이 더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 연결 어미에 의해 이어진 절과 절의 다양한 관계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결합 여부를 따지는 것보다는 그 결합의 다양한 정도를 체계화하는 것이 과제가 될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특성들을 중심으로 하여 연결 어미의 의미 범주나 개별 연결 어미의 특성에 따라 접속문에서 선행절의 독립성이나 의존성이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 Ⅱ. 독립성과 의존성

### 1. 주어의 공유 현상

본 절에서는 연결 어미가 붙은 절의 독립성과 의존성이 선행절과 후행절 주어의 동일성 여부에 의해서 그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논의하려 한다. 우선 비교적 선행절과 후행절의 관계가 대등하다고 판단되어 온 접속문의 절과 절의 관계에서 선행절의 독립성이 주어의 동일성 여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나열의 관계로 선행절과 후행절을 연결하는 접속문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비동일 주어의 사태가 연결될 수도 있고 동일 주어의 사태가 연결될 수도 있다. 그런데 동일 주어의 사태를 연결한 경우에는 비동일 주어의 사태를 연결한 경우보다는 그 독립성이 좀더 약화됨을 볼 수 있다.

우선 과거 시제소와 관련하여 이 현상을 살펴보기로 하자.

- (5) 가. 철수가 학교에 갔고 영희가 집에 갔다.  
 나. 철수가 학교에 가고 영희가 집에 갔다.  
 (6) 가. 철수가 씩씩했고 명랑했다.  
 나. 철수가 씩씩하고 명랑했다.

위의 예문은 '-고'에 의해 이어진 선행절과 후행절이 단순히 나열된 것으로 해석되는 접속문이다. 이 경우 (5)처럼 비동일 주어의 사태를 연결하여 기술하는 경우에는 (5가)처럼 선행절에 과거 시제소가 결합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5나)처럼 다른 주어의 사건을 연결하면서 선행절에 과거 시제소가 결합되지 않았을 때는 나열의 의미로 해석되기보다는 동시적인 관계로 해석되기가 더 쉽다. 그러나 (6)처럼 동일한 주어의 사태에 대하여 기술하는 경우는 (6나)처럼 선행절에 과거 시제소가 결합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다.

다음의 예문은 '-(으)며'에 의해 이어진 절과 절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이다.

- (7) 가. 철수가 노래를 불렀으며 영희가 피아노를 쳤다.  
 나. 철수가 노래를 부르며 영희가 피아노를 쳤다.  
 (8) 가. 철수가 기타를 쳤으며 노래를 불렀다.  
 나. 철수가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렀다.

이 경우에도 다른 주어의 사건이 연결된 (7)에 비해 동일한 주어의 사건이 연결된 (8)의 경우 (8나)처럼 선행절에 과거 시제소가 결합되지 않는 편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

이러한 특성, 즉 다른 주어의 사태를 연결한 경우보다는 동일한 주어의 사태를 연결하였을 경우 연결 어미가 붙은 절의 독립성이 낮아진다는 특성은 미래 시제나 추측의 양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겠-' 과의 결합에서도 나타난다.

- (9) 가. 철수가 학교에 가겠고 영희가 집에 가겠다.  
나. 철수가 학교에 가고 영희가 집에 가겠다.
- (10) 가. 철수가 책도 보겠고 그림도 그리겠다.  
나. 철수가 책도 보고 그림도 그리겠다.

위의 예문은 연결 어미 '-고'에 의해 선행절과 후행절이 나열된 것으로 해석되는 접속문이다.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겠-'의 경우는 다른 주어의 사태로 연결된 (9)의 경우에도 독립적으로 선행절에 결합되기보다는 후행절에 의존하여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9나)의 경우에 선행절의 시제가 현재로 해석될 수도 있으므로 미래 시제임을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9가)처럼 표현할 수 있다. 한편 동일 주어의 사태가 연결된 경우에는 그러한 의존성이 더욱 더 높아져서 (10가)보다는 선행절에 미래 시제소가 결합되지 않은 (10나)가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다음의 예문은 '-고'에 의해 연결된 앞뒤 절의 관계가 대조적인 것으로 해석되는 접속문이다.

- (11) 가. 철수가 극장에 가겠고 영희가 안 가겠다.  
나. 철수가 극장에 가고 영희가 안 가겠다.
- (12) 가. 철수가 노래는 잘 하겠고 운동은 못하겠다.  
나. 철수가 노래는 잘 하고 운동은 못하겠다.

이러한 접속문에서도 (11나)처럼 다른 주어의 사태가 대조되었을 때는 선행절의 시제가 독립적으로 해석되어 현재로 해석되기가 쉽다. 그러나 (12나)처럼 동일한 주어의 사태가 대조되었을 경우에는 위의 (11나)에 비해서는 선행절의 시제가 현재로 해석될 가능성보다는 후행절에 의존하여 미래로 해석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검토의 결과는 비교적 독립성이 높은 대등 접속문의 선행절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주어의 사태로 이어진 접속문에 비해서 동일한 주어의 사태로 이어진 경우 그 독립성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 2. 선어말 어미의 공유 현상

### 1) 주체 존대소의 공유 현상

주체 존대를 표시하는 선어말 어미 '-시-'의 경우는 주절에 의존하여 해석되기보다는

대체로 선행절에 독립적으로 결합되는 편이 더 자연스럽게 여겨진다. 다음의 예문을 보기로 하자.

- (13) 가. 할아버지는 노인정에 가시고 할머니는 시장에 가셨습니다  
 나. 할아버지는 노인정에 가고 할머니는 시장에 가셨습니다.  
 (14) 가. 할아버지는 엄하시며 할머니는 자상하십니다.  
 나. 할아버지는 엄하며 할머니는 자상하십니다.

위의 예문은 연결 어미 '-고'나 '-(으)며'에 의해 선행절과 후행절이 나열의 의미 관계로 이어진 문장이다. 이 경우 주체 존재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시-'는 (13가)나 (14가)처럼 선행절에 결합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접속문에서 선행절과 후행절에 모두 '-시-'를 결합시키는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의 접속문은 선행절과 후행절의 관계가 선택적인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이다.

- (15) 가. 할아버지가 오시거나 할머니가 오십니다.  
 나. 할아버지가 오거나 할머니가 오십니다.  
 (16) 가. 할아버지가 가시든지 할머니가 가십니다.  
 나. 할아버지가 가든지 할머니가 가십니다.

이 때에도 위의 나열의 접속문과 유사하게 선행절 서술어에는 주체 존재를 표시하는 '-시-'가 결합되는 (15가)나 (16가)가 훨씬 더 자연스럽게 여겨진다. 이들 예문을 다음의 예문과 비교해 보자.

- (17) 가. 할아버지는 일을 하시나 할머니는 일을 안 하십니다.  
 나. 할아버지는 일을 하나 할머니는 일을 안 하십니다.  
 (18) 가. 할아버지는 일을 하시지만 할머니는 일을 안 하셔.  
 나. 할아버지는 일을 하지만 할머니는 일을 안 하셔.

위의 예문들은 모두 선행절과 후행절의 관계가 대조적인 것으로 해석되는 문장이다. 이 경우도 역시 나열의 의미나 선택의 의미로 이어진 문장과 유사하게 선행절 서술어에 주체 존재를 표시하는 '-시-'가 결합되는 (17가), (18가)가 더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다음의 예문은 선행절에서 후행절에 대한 배경을 제시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이다.

- (19) 가. 어제 할아버지가 오셨는데 선물을 많이 가지고 오셨어.  
 나. ?어제 할아버지가 왔는데 선물을 많이 가지고 오셨어.

이 때에는 (19나)에서 보듯이 선행절에 주체 존재를 나타내는 '-시-'가 결합되지 않으면 아주 어색하게 느껴진다.

다음으로 선행절이 후행절에 대한 원인의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를 보자.

- (20) 가. 할아버지가 가시니까 할머니도 가서.  
나. 할아버지가 가니까 할머니도 가서.
- (21) 가. 할아버지가 가서서 할머니도 가서.  
나. 할아버지가 가서 할머니도 가서.
- (22) 가. 할아버지가 가시므로 할머니도 가십니다.  
나. 할아버지가 가므로 할머니도 가십니다.
- (23) 가. 할아버지가 부르시기에 할머니가 돌아보십니다.  
나. 할아버지가 부르기에 할머니가 돌아보십니다.

위의 예문들은 선행절에서 후행절에 대한 원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접속문의 경우인데, 이러한 접속문에서도 선행절에 주체 존대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시-’가 결합되지 않으면 (20나)-(23나)처럼 어색한 문장이 된다.

다음의 예문은 선행절이 후행절에 대한 조건의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이다.

- (24) 가. 할아버지가 가시면 할머니도 가서.  
나. 할아버지가 가면 할머니도 가서.
- (25) 가. 할아버지가 가서야 할머니가 가서.  
나. 할아버지가 가야 할머니가 가서.

이러한 접속문에서도 선행절에 ‘-시-’가 독립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다음의 예문은 선행절이 후행절에 대한 양보의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이다.

- (26) 가. 할아버지가 가서도 할머니는 안 오실 거야.  
나. 할아버지가 가도 할머니는 안 오실 거야.
- (27) 가. 할아버지가 가시더라도 할머니는 안 오실 거야.  
나. 할아버지가 가더라도 할머니는 안 오실 거야.

이러한 접속문에서도 역시 선행절에 ‘-시-’가 결합된 (26가), (27가)가 좀더 자연스럽다.

다음의 예문은 후행절의 사태로 인하여 예상되는 결과를 선행절에 제시한 것으로 해석되는 접속문이다.

- (28) 가. 할아버지가 책을 조용히 읽으시도록 할머니가 나가셨어.  
나. 할아버지가 책을 조용히 읽도록 할머니가 나가셨어.
- (29) 가. 할아버지가 나가시게 할머니가 들어오셨어.  
나. 할아버지가 나가게 할머니가 들어오셨어.

이 경우에도 선행절에 독립적으로 ‘-시-’가 결합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다음의 예문들은 모두 선행절이 후행절보다 시간적으로 앞서서 일어난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이다.

- (30) 가. 할아버지가 가시고서 할머니가 오셨어.  
나. 할아버지가 가고서 할머니가 오셨어.
- (31) 가. 할아버지가 가시자 할머니가 오셨어.  
나. 할아버지가 가자 할머니가 오셨어.
- (32) 가. 할아버지가 오시자마자 할머니도 오셨어.  
나. 할아버지가 오자마자 할머니도 오셨어.
- (33) 가. 할아버지가 신문을 보시다가 할머니가 신문을 보셔.  
나. 할아버지가 신문을 보다가 할머니가 신문을 보셔.

이러한 접속문에서도 선행절에 주체 존대를 나타내는 ‘-시-’가 결합된 (가)가 좀더 자연스럽기는 하나, 선행절의 ‘-시-’에 기대어 의존적으로 해석되는 (나)도 어색하지는 않은 듯하다.

이상에서 선행절과 후행절에 주체 존대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시-’가 쓰인 예문들을 검토하였다. 일반적으로 접속문의 선행절에는 ‘-시-’가 결합되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이는 연결 어미가 붙은 선행절이 후행절과 주체 존대 요소를 공유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을 보인다.<sup>6)</sup>

## 2) 시제소의 공유 현상

### (1) 과거 시제소의 공유 현상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었-’의 경우는 앞절에서 본 주체 존대를 표시하는 선어말 어미 ‘-시-’에 비하면 의존성이 높다. 왜냐하면 선행절 서술어에는 ‘-었-’이 결합되지 않거나 결합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선행절에 과거 시제의 선어말 어미가 독립적으로 결합되는 경우를 먼저 보기로 하자.

다음의 예문은 선행절이 후행절 사건에 대한 배경을 제시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문장이다.

- (34) 가. 어제는 공원에 산책을 갔는데 공원에 사람이 무척 많았다.  
나. \*어제는 공원에 산책을 가는데 공원에 사람이 무척 많았다.

이 경우에는 (34나)처럼 선행절에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었-’이 결합되지 않으면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그러므로 배경을 제시하는 의미로 해석되는 접속문의 선

6) 그러나 이는 비동일 주어의 동작이 선행절과 후행절에 연결되었을 경우이다. 동일한 주어의 동작이 연결된 경우나 서술어에 동작 동사가 아닌 상태 동사가 쓰였을 경우에는 결과가 조금 달라진다. 즉 동일한 주어가 쓰인 접속문의 선행절은 다른 주어가 쓰인 접속문의 선행절에 비해 후행절에 대한 높은 의존성을 보이며 상태 동사가 쓰였을 경우에도 동작 동사가 쓰였을 경우보다 후행절에 대한 높은 의존성을 보인다.



행절은 과거 시제소의 결합에 관한 한 상당히 독립적임을 알 수 있다.

다음의 예문은 선행절과 후행절의 내용이 대조적인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이다.

- (35) 가. 철수는 갔(-지만/-으나) 영화는 왔다.
- 나. 철수는 가(-지만/-으나) 영화는 왔다.

이러한 접속문에서는 선행절에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었-’이 쓰이지 않았을 경우 선행절 사건이 과거로 해석되기보다는 현재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선행절 사건이 과거에 일어났음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선행절 서술어에 ‘-었-’이 독립적으로 결합된 (35가)가 훨씬 더 자연스럽다.

다음의 예문은 선행절과 후행절의 관계가 나열의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이다.

- (36) 가. 철수는 학교에 갔(-고/-으며) 영화는 회사에 갔다.
- 나. 철수는 학교에 가(-고/-으며) 영화는 회사에 갔다.

이러한 나열의 접속문에서는 (36나)처럼 선행절에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었-’이 결합되지 않았을 경우는 나열의 의미보다는 동시적인 사건으로 해석되기가 더 쉬운 것 같다. 그러므로 선행절 사건과 후행절 사건을 독자적으로 나열하는 의미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선행절의 서술어에 ‘-었-’이 결합되는 것이 자연스럽다.<sup>7)</sup>

그러나 선행절 사건과 후행절 사건 사이에 시간성이 개입되는 경우는 다른 특성을 보인다.

- (37) 가. 철수가 집에 왔고 조금 뒤에 영화가 왔다.
- 나. 철수가 집에 오고 조금 뒤에 영화가 왔다.

위의 예문 (37)은 선행절 사건이 일어난 후에 후행절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선행절에는 ‘-었-’이 결합되지 않는 편이 더 낫다. 선행절에 과거 시제소 ‘-었-’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독립성이 강하여 동시적인 의미나 계기적인 의미로 해석되기보다는 나열의 의미로 해석되기가 쉽다. 이는 나열의 의미 관계에 비해 시간성이 개입되는 경우는 선행절이 후행절에 대해 더 의존적임을 보인다.

다음의 예문은 선행절과 후행절의 내용이 선택적인 의미로 연결된 경우이다.

- (38) 가. 철수가 심부름을 했(-거나/-든지) 영화가 심부름을 했다.
- 나. 철수가 심부름을 하(-거나/-든지) 영화가 심부름을 했다.

7) 특히 ‘-(으)며’의 경우 선행절 서술어에 과거 시제 ‘-었-’이 결합될 가능성이 더 높은 듯하다. 채연강(1985:32)와 전혜영(1989: 42-3)에서는 화자가 ‘-(으)며’를 쓰면 나열되는 정보의 내용이 ‘이질적’이고 ‘-고’를 쓰면 나열되는 정보의 내용이 ‘동질적’이라는 것이 함축된다고 보았는데, 이러한 의미는 ‘-(으)며’가 더 독립적이라는 현재의 논의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선택의 접속문에서는 (38가)처럼 선행절에 독립적으로 선어말 어미 ‘-었-’이 결합될 수도 있지만 후행절의 과거 시제소에 기대어 의존적으로 해석되는 (38나)가 더 자연스러운 듯하다.

다음의 예문들은 모두 선행절이 후행절에 대한 양보의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이다.

(39) 가. 철수가 붙잡았(-아도/-더라도) 영화는 갔을 것이다.

나. 철수가 붙잡(-아도/-더라도) 영화는 갔을 것이다.

이러한 접속문에서도 (39가)처럼 선행절 서술어에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었-’이 결합할 수는 있으나 (39나)처럼 결합되지 않는 편이 더 자연스럽다.

다음의 예문들은 선행절이 후행절 사건에 대한 조건의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이다.

(40) 가. 철수가 갔(-으면/-어야) 영화가 왔다.

나. 철수가 가(-면/-어야) 영화가 왔다.

(41) 가. 철수가 왔거든 밥을 차려 주어라.

나. 철수가 오거든 밥을 차려 주어라.

이러한 조건의 접속문에서는 흥미있는 특성이 보인다. 즉 (40가)나 (41가)처럼 조건의 의미를 나타내는 선행절에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었-’이 결합되면 선행절의 시제는 후행절 사건보다 먼저 일어나 완료된 것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조건의 의미를 나타내는 선행절 사건과 결과의 의미를 나타내는 후행절 사건이 시간 간격이 거의 없이 일어난 것으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40나)나 (41나)처럼 후행절의 선어말 어미에 기대어 의존적으로 해석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

다음의 예문은 모두 선행절이 후행절에 대한 원인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는 접속문이다.

(42) 가. 철수가 장난을 쳤으니까 영화가 화를 냈다.

나. 철수가 장난을 치니까 영화가 화를 냈다.

(43) 가. \*철수가 장난을 쳤어서 영화가 화를 냈다.

나. 철수가 장난을 쳐서 영화가 화를 냈다.

(44) 가. 철수가 일을 많이 했으므로 주인이 보수를 많이 주었다.

나. 철수가 일을 많이 하므로 주인이 보수를 많이 주었다.

(45) 가. 철수가 불렀기에 영화가 돌아보았다.

나. 철수가 부르기에 영화가 돌아보았다.

(46) 가. \*철수가 서류를 찾았느라고 어머니가 방 청소를 못 하셨다.

나. 철수가 서류를 찾느라고 어머니가 방 청소를 못 하셨다.

이러한 접속문에서는 연결 어미의 특성에 따라 선행절에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었-’의 결합 여부가 달라진다. (43)의 ‘-어서’나 (46)의 ‘-느라고’는 선행절에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었-’이 전혀 결합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항상 후행절의 과거 시제

에 의존하여 해석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으)니까’의 경우는 선행절에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었-’이 결합되지 않은 (42나)가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기에’, ‘-(으)므로’는 선행절에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었-’이 결합된 (44가)나 (45가)가 훨씬 더 자연스럽게 여겨진다.<sup>8)</sup>

이러한 특성은 같은 원인의 의미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라고 하더라도 과거 시제소의 결합과 관련하여 선행절과 후행절의 독립성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음을 보인다. 즉 상대적으로 ‘-기에’나 ‘-(으)므로’는 선행절의 후행절에 대한 독립성이 강하며 ‘-(으)니까’는 그에 비해서는 독립성이 약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어서’나 ‘-느라고’는 완전히 의존적이라고 할 수 있다.<sup>9)</sup>

다음의 예문은 선행절의 내용이 후행절의 사태로 인하여 예상되는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이다.

- (47) 가. \*철수가 조용히 공부했(-도록/-게) 우리는 나가 놀았다.  
 나. 철수가 조용히 공부하(-도록/-게) 우리는 나가 놀았다.

이러한 접속문에서는 선행절의 서술어에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었-’이 결합될 수 없다. 그러므로 선행절의 시제는 (47나)처럼 후행절의 ‘-었-’에 기대어 의존적으로 해석되어야만 한다. 즉 선행절의 사태는 항상 후행절의 사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후에 일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다음의 예문은 모두 선행절의 사건이 후행절 사건보다 시간적으로 먼저 일어났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는 접속문이다.

- (48) 가. \*아버지가 가셨고서 어머니가 가셨다.  
 나. 아버지가 가시고서 어머니가 가셨다.  
 (49) 가. \*철수가 학교에 갔자 영희도 곧 뒤따라 갔다.  
 나. 철수가 학교에 가자 영희도 곧 뒤따라 갔다.  
 (50) 가. ?\*철수가 학교에 갔자마자 영희도 곧 뒤따라 갔다.  
 나. 철수가 학교에 가자마자 영희도 곧 뒤따라 갔다.  
 (51) 가. ?철수가 책을 읽었다가 영희가 책을 읽었다.  
 나. 철수가 책을 읽다가 영희가 책을 읽었다.

이러한 접속문에서는 (48가)나 (49가)처럼 연결 어미 ‘-고서’나 ‘-자’가 붙은 선행절의

8) ‘-므로’는 현재의 동작이나 상태보다는 완료의 동작이나 상태를 원인이나 이유로 선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는 견해가 있는데(최재희 1989: 104), 이러한 견해는 현재의 검토 결과와 일치한다.

9) 이러한 특성은 개별 연결 어미의 의미와도 상관 관계가 있을 것이나 여기에서는 ‘-었-’의 결합과 관련된 특성만을 비교하기로 한다.

서술어에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었-'이 결합될 수 없다. (50가)의 '-자마자'가 붙은 선행절의 서술어에도 과거 시제소가 결합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 '-다가'의 경우에는 (51가)처럼 선행절 서술어에 '-었-'이 결합되면 의미에 약간의 차이가 생긴다. 즉 선행절 서술어에 '-었-'이 결합되면 '-다가'가 가지고 있는 중단의 의미가 사라지고 단지 선행절 사건이 완전히 끝난 후 후행절 사건이 이어진다는 의미만을 나타내는 듯하다. 그러나 선행절 서술어에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었-'이 결합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선행절 사건이 진행되는 도중에 후행절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의미 차이를 인정한다면 역시 '-다가'의 선행절에도 과거 시제의 선어말 어미 '-었-'이 결합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원인, 조건, 양보, 결과, 선행 등의 접속문에서 선행절 서술어에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었-'이 결합되어 나타나면 부연스러운 것은 이들 접속문의 선행절과 후행절 사이에는 시간적인 순서가 사실상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원인과 결과, 조건과 결과, 양보와 반대 결과 등의 관계에서는 선행절의 사태가 후행절의 사태에 비해 시간적으로 선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결과의 접속문에서는 선행절 사건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때에도 선행절의 사건은 후행절의 사건에 비해 나중에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이다. 시간적으로 선행하는 접속문 역시 선행절의 사건이 후행절의 사건에 비해 언제나 시간적으로 앞서 일어난다. 이러한 시간적인 순서가 이미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접속문의 선행절에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가 결합되지 않는 경향이 높은 듯하다.

이상에서 의미 범주별로 또는 개별 연결 어미별로 선행절의 서술어에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었-'이 결합되는 편이 더 자연스러운가 아니면 결합되지 않는 편이 자연스러운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52) 가. 배경, 대조, 나열, 원인(-으므로, -기에) 접속문의 선행절에는 과거 시제소가 결합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나. 선택, 양보, 조건, 원인(-으니까)의 접속문에서는 선행절에 과거 시제소가 결합되지 않는 편이 자연스럽다.

다. 원인(-어서, -느라고), 결과, 선행의 접속문에는 선행절에 과거 시제소가 결합될 수 없으므로 후행절에 기대어 의존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 (2) 미래 시제소의 공유 현상

한편 연결 어미로 이어진 접속문의 선행절 서술어에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겠-'이 독립적으로 결합되는 것이 자연스러운지 아니면 후행절 서술어에 결합된 선어말 어미 '-겠-'에 의존하여 해석되는 것이 자연스러운지를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sup>10)</sup> 물론 이

경우 미래 시제를 나타내기도 하고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본고에서는 이를 포괄적으로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기로 한다.

다음의 예문들은 모두 연결 어미가 붙은 절의 사태가 후행절의 사태와 대조적인 의미로 해석되는 접속문들이다.

(53) 가. 철수는 가겠(-지만/-으나) 영화는 오겠다.

나. 철수는 가(-지만/-으나) 영화는 오겠다.

(53가)처럼 선행절에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겠-’이 결합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선행절의 시제가 독립적인 해석을 받아서 현재로 해석되고 후행절만 미래 시제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해석의 가능성은 후행절의 ‘-겠-’에 의존하여 둘 다 미래 시제로 해석되는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 때문에 선행절의 서술어에 독립적인 미래 시제소가 결합하지 않으면 시제 해석상의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조의 접속문에서는 (53가)처럼 선행절 서술어에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겠-’이 결합하는 편이 자연스럽다.

다음의 예문은 선행절과 후행절의 사태가 나열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접속문이다.

(54) 가. 철수는 학교에 가겠(-고/-으며) 영화는 집에 가겠다.

나. 철수는 학교에 가(-고/-으며) 영화는 집에 가겠다.

이 경우에도 선행절의 서술어에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겠-’이 결합되지 않으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즉 독립적인 시제 해석을 받아 현재로 해석될 수도 있고, 의존적인 시제 해석을 받아 미래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대조의 접속문에 비해서는 의존적인 시제 해석의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즉 선행절 서술어에 독립적으로 선어말 어미 ‘-겠-’이 결합되지 않아도 후행절에 의존하여 미래로 해석될 가능성이 대조의 접속문보다는 높은 듯하다. 그러므로 나열의 접속문의 경우는 선행절의 서술어에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겠-’이 독립적으로 결합하는 것과 결합하지 않는 것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나열의 접속문에 시간적인 순서가 반영될 때는 그 양상이 달라진다.

(55) 가. 철수가 먼저 오고 영화가 나중에 오겠다.

나. (내일 발표회 때) 철수가 노래를 부르고 영화가 피아노를 치겠다.

---

10) 이는 선행절 서술어에 ‘-겠-’만 결합된 경우를 의미한다. ‘먹었겠다’처럼 서술어의 어간에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었-’이 결합한 뒤 다시 ‘-겠-’이 결합한 경우는 추측의 의미만을 나타낸다.

(55가)처럼 선행절의 사건이 후행절의 사건보다 먼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나, (55나)처럼 선행절의 사건과 후행절의 사건이 거의 동시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선행절의 서술어에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겠-’이 독립적으로 결합되는 것보다는 후행절의 미래 시제소에 기대어 의존적으로 해석되는 편이 더 자연스럽다.

다음의 예문은 선행절과 후행절의 사태가 선택적인 관계로 해석되는 접속문의 경우이다.

(56) 가. 철수가 가겠(-거나/-든지) 영화가 가겠다.

나. 철수가 가(-거나/-든지) 영화가 가겠다.

이 경우에도 선행절의 서술어에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겠-’이 결합되지 않으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즉 (56나)는 ‘현재 철수가 가거나 나중에 영화가 갈 것이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고 ‘나중에 철수나 영화 둘 중에 한 사람이 갈 것이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두 번째 해석이 일반적인 해석인 듯하며 첫 번째 해석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선택의 접속문의 경우에도 선행절의 서술어에 미래 시제소가 독립적으로 결합되는 것보다는 후행절의 미래 시제소에 기대어 의존적으로 해석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다음의 접속문은 선행절의 사태가 후행절의 사태에 대한 배경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이다.

(57) 가. (시계를 5시에 맞춰 놓으면) 아기가 곤하게 자고 있겠는데 벨이 울리겠다.

나. (시계를 5시에 맞춰 놓으면) 아기가 곤하게 자고 있는데 벨이 울리겠다.

이 때에도 선행절에 미래 시제소가 독립적으로 결합되지 않은 (57나)의 경우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즉 ‘지금 아기가 자고 있는데 나중에 5시가 되면 벨이 울릴 것이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고, ‘5시 쯤이면 아마 아기가 자고 있을 시간인데 그 때 벨이 울릴 것이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 경우 두 번째 해석을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는 (57가)처럼 선행절에 미래 시제소 ‘-겠-’을 결합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57나)처럼 선행절에 미래 시제소를 결합시키지 않고 후행절의 미래 시제소에 기대어 의존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다음의 접속문은 선행절이 후행절에 대한 원인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는 예이다.

(58) 가. 비가 오겠(-어서/-으니까/-으므로/-기에) 우산을 가져가야겠다.

나. 비가 오(-아서/-으니까/-으므로/-기에) 우산을 가져가야겠다.

(59) 가. \*시험 공부를 하겠느라고 밤을 꼬박 새우겠다.

나. 시험 공부를 하느라고 밤을 꼬박 새우겠다.

이러한 접속문에서는 (58나)처럼 선행절에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겠-’이

결합되지 않은 경우 선행절의 시제는 독립적으로 현재로 해석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 경우 선행절의 시제가 후행절의 '-겠-'에 기대어 미래로 해석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선행절의 사태가 미래의 사태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선행절에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겠-'이 결합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후행절의 사태에 대한 원인으로 미래의 사태가 제시되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선행절에 제시되는 원인의 사태는 이미 일어난 것이거나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느라고'의 경우는 (59가)처럼 선행절의 서술어에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겠-'이 결합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59나)와 같이 의존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다음의 예문들은 선행절이 후행절 사태에 대한 조건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이다.

(60) 가. 철수가 가겠(-으면/-어야) 영화가 오겠다.

나. 철수가 가(-면/-어야) 영화가 오겠다.

(60나)의 접속문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은 선행절이 현재로 해석되어 '지금 철수가 가면 나중에 영화가 올 것이다'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 다음으로는 선행절이 미래로 해석되어 '조금 뒤에 철수가 가고 나면 그 이후에 영화가 올 것이다'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한편 (60가)의 예는 '앞으로 철수가 갈 예정이면 영화가 올 것이다'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때에도 해석은 두 가지가 가능하다. 즉 선행절 사건과 후행절 사건의 시간적 순서는 바뀔 수도 있다. 가령 '철수가 언젠가 갈 예정이면 영화는 곧 올 것이다'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철수가 가는' 사건보다 '영화가 오는' 사건이 먼저 일어날 수도 있고, 또는 '철수가 가는' 사건이 '영화가 오는' 사건보다 먼저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조건 접속문의 선행절에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겠-'이 결합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의 접속문은 선행절의 내용이 후행절의 사태에 대한 양보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이다.

(61) 가. \*철수가 아무리 달래겠(-어도/-더라도) 영화는 화가 안 풀리겠다.

나. 철수가 아무리 달래(-도/-더라도) 영화는 화가 안 풀리겠다.

이러한 접속문에서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사태가 모두 미래의 사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도 선행절의 서술어에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겠-'이 결합되기는 어려운 듯하다. 즉 (61나)만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61나)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한 가지 해석은 '지금 철수가 아무리 영화를 달래고 있어도 영화는 앞으로도 화가 풀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해석은 '앞으로 철수가 아무리 영화를 달래도 영화는 화가 풀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다. 두 번째 해석의 경우 선행절의 미래 시제

는 후행절의 미래 시제에 기대어 해석된다. 그러므로 양보 접속문의 선행절의 미래 시제는 언제나 후행절의 미래 시제에 기대어 해석되어야 한다.

다음의 접속문은 선행절이 후행절의 사태로 인하여 예상되는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이다.

(62) 가. \*철수가 조용히 공부하겠(-도록/-게) 아이들이 나가 놀겠다.

나. 철수가 조용히 공부하(-도록/-게) 아이들이 나가 놀겠다.

이러한 접속문에서는 (62가)처럼 선행절에 독립적인 미래 시제소가 결합될 수 없고 (62나)처럼 선행절의 미래 시제가 언제나 후행절의 미래 시제에 기대어 해석되어야 한다.

다음의 접속문은 선행절의 사건이 후행절의 사건에 비해 시간적으로 먼저 일어난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이다.

(63) 가. \*철수가 책을 읽겠(-고서/-자/-자마자/-다가) 영희가 책을 읽겠다.

나. 철수가 책을 읽(-고서/-자/-자마자/-다가) 영희가 책을 읽겠다.

이러한 접속문도 결과의 접속문과 마찬가지로 선행절의 서술어에는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겠-'이 결합될 수 없다.

이상에서 선행절에 독립적으로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겠-'이 결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64) 가. 대조, 원인 접속문의 선행절에는 미래 시제소가 독립적으로 결합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나. 나열 접속문의 선행절에는 미래 시제소가 독립적으로 결합될 수도 있고 후행절에 기대어 의존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다. 선택, 배경, 조건 접속문의 선행절에는 미래 시제소가 독립적으로 결합될 수는 있으나 후행절에 기대어 의존적으로 해석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라. 양보, 결과, 선행, 원인(-느라고) 접속문의 선행절에는 미래 시제소가 독립적으로 결합될 수 없으므로 후행절에 기대어 의존적으로 해석되어야만 한다.

이상의 검토 결과를 보면 미래 시제소의 경우 선행절에 독립적으로 결합되기보다는 후행절과 공유하여 의존적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과거 시제소에 비해서 높다고 할 수 있다.

### Ⅲ. 맺 음 말

이상에서 본고는 국어 접속문의 선행절과 후행절의 관계를, 선행절의 독립성과 의존성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선행절의 독립성과 의존성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된 것은 선행절과 후행절 주어의 공유 여부와 주체 존대소 '-시-', 과거 시제소 '-



었-', 미래 시제소 '-겠-' 등의 선어말 어미의 공유 여부였다.

접속문에서 선행절의 독립성은 연결 어미가 붙은 선행절이 후행절과 언표 내적 효력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만을 공유할 때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선행절의 독립성은 선행절과 후행절이 주어를 공유하게 되면 그 정도가 낮아지고, 선행절과 후행절에 다른 주어의 사태가 연결되면 동일한 주어의 사태가 연결되는 경우에 비해 높은 독립성을 나타낸다.

또한 선어말 어미의 공유 여부를 살펴본 결과 주체 존대소는 대체로 선행절 서술어에 결합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나머지 선어말 어미들은 뒤에 결합되는 것일수록 의존적으로 해석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경향을 보였다. 즉 서술어의 어간과 종결 어미 사이에 결합될 수 있는 선어말 어미의 결합 정도는 앞쪽으로 갈수록 독립성이 높아지고 뒷쪽으로 갈수록 그 의존성의 정도가 심해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과거 시제소나 미래 시제소는 연결 어미의 의미 범주나 개별 연결 어미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검토해 본 결과 접속문의 절과 절 사이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경향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65) 가. 연결 어미에 의해 이어진 두 절이 주어를 공유하면 선행절의 후행절에 대한 의존성은 높아진다.

나. 연결 어미에 의해 이어진 두 절이 선어말 어미를 공유하면 선행절의 후행절에 대한 의존성은 높아진다.

일반적으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에 비해 의존적인 경향을 보인다.<sup>11)</sup> 그러나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도 그 종속성의 정도에 차이가 있으며,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도 그 종속성의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러한 정도 차이를 토대로 하면 선행절의 독립성은 다음과 같은 대략적인 경향으로 나타낼 수 있다.<sup>12)</sup>

(66) 대조 > 나열 > 선택 > 배경 > 원인 > 조건 > 양보 > 결과 > 선행

11) 이러한 독립성과 의존성의 정도는 대등성과 종속성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대등성과 종속성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여러 가지 특성들, 즉 선행절과 후행절의 대칭성, 선행절의 이동성, 후행절에서의 대응 현상, 선행절과 후행절의 대조성, 선행절 시제 해석의 독립성, 언표 내적 효력의 공유 현상 등은 독립성이나 의존성과도 관련 된다. 즉 독립성이 높을수록 대등성은 높아지며, 의존성이 높을수록 종속성도 높아진다.

12) 이러한 대체적인 경향은 앞으로 다양한 자료의 검토를 통해 좀더 정밀하게 검증될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김영희, “등위 접속문의 통사 특성”, 한글 201-202, 한글학회, 1988.
- \_\_\_\_\_, “중속 접속문의 통사적 양상”, 서재극 박사 환갑기념논문집, 계명대출판부, 1991.
- 윤평현, “국어의 접속어미에 대한 연구: 의미론적인 기능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1989.
- 이은경, “텍스트에서의 접속어미의 기능”, 텍스트연구 2, 텍스트연구회, 서광학술자료사, 1994.
- \_\_\_\_\_, “국어의 연결 어미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1996.
- 임홍빈·장소원, 국어문법론 I,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1995.
- 전혜영, “현대 한국어 접속어미의 화용론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1989.
- 채연강, “현대 한국어 연결어미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1985.
- 최재희, “국어 접속문의 구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1989.
- 최현배, 우리말본, 정음사, 1971.
- Givón, T., *Syntax I: A Functional-typological Introduction*, John Benjamin Publishing Company, 1984.
- Givón, T., *Syntax II: A Functional-typological Introduction*, John Benjamin Publishing Company, 1990.

## 《Abstract》

## On the Independency and Dependency in Korean Connective Constructions

Yi Eun-Gyoung

This paper is an attempt to clarify the interclausal syntactic relation in Korean connective constructions. The distinction between coordination and subordination in Korean is not always clear-cut, but is often a matter of degree. To investigate the degree of the interclausal relation in Korean more closely, the concept of independency and dependency was introduced.

The independency means that the preceding clause in connective constructions has its own subject and prefinal endings. On the other hand the dependency means that the preceding clause shares one subject or prefinal endings with the main clause. The independency degree of preceding clause is said to be the highest when the preceding clause and the main clause share only conclusive ending that is representing illocutionary force. The dependency degree of preceding clause is high when it has neither independent subject nor independent prefinal endings. So the general tendency of interclausal relation in connective constructions is represented as following; The more dependent the preceding clause is on the main clause, the less likely are independently-expressed subject and prefinal endings to appear in the preceding clause.

We could conclude that the independency of preceding clause is represented as following on the whole; contrastive clauses > enumerative clauses > selective clauses > background clauses > cause clauses > conditional clauses > concessive clauses > resultative clauses > temporal preceding clauses.

